

아침論壇



柳錫春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은 모처럼 국민들에게 "정치도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제주를 시작으로 울산·광주·대전 등 지역이 바뀔 때마다 판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與, 경선 뒷마무리에 성과

후보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축각을 곤두세우며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실험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지도체제의 민주화라는 명분을 놓고 탈당과 내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DJ 정부의 실정을 발판으로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게이트'가 제공해준 의혹과 분노 덕택에 야당인 한나라당의 존재가 부각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국민의 관심은 언제든지 '포지티브' 한 방식의 관심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네거티브' 한 방식의 프리미엄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크게 '2강 체제'로 압축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대세론'과 '대안론'을 각각 대표하는 이인제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각축이 앞으로 남은 일정의 핵심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조적이다. 한 사람은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의 서민층을 대변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는 주류

번 선거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행위가 지배적일 것이란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호남과 충청이 합하고 영남이 갈라지면 필승이라는 계산을 한다.

野, 반사이익만 노려선 낭패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니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전적으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민주당의 몫이다. 한 쪽에서는 광주에서의 경선 결과를 두고 드디어 지역주의 대신 계급관계에 기초한 선택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어서 진행된 대전의 경선 결과는 앞의 견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의 앞치락뒤치락은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야당에 또 한번의 '네거티브' 프리미엄을 선사하는 결과로 전락하면 곤란하다. 야당 역시 그러한 '네거티브' 효과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하루 빨리 '포지티브' 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세대 교수·사회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급투표 對 지역투표

바로 지금 여당의 경선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경선이 앞으로 모양새를 갖춰 잘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여당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내용이야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후계자의 지명이라는 전근대적 유산을 청산했다는 프리미엄은 분명 다음 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경선이 과열과 혼탁으로 치달아 결국은 누군가의 불복으로 마무리된다면 야당은

에 속해 있다고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러한 두 사람의 차별성 때문에 국민들은 과연 집권 여당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지 더욱 궁금해한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두 후보의 차별성을 놓고 본선에서의 득표력을 저울질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후보에 대한 기대에는 계급관계에 기초한 투표행위라는 소위 진보세력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 이들은 숫자로 보면 월등한 비율을 차지하는 서민층의 지지가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다는 계산을 한다. 반면에 이인제 후보에 대한 기대는 이